

# “지역산림 잘가꿔 경제발전 이바지”

## 고성군산림조합 제49기 정기총회 개최 ... 이수남 이사 중앙회장 공로패 수상

고성군산림조합(조합장 김일용)은 지난 22일 오전 11시30분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9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1부 공로패증정, 조합장 인사, 중앙회장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전회 회의록 낭독, 2010년도 결산 감사보고, 2010년도 결산 및 조합임원(비상임감사)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일용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가 장기 침체를 거듭하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으로 여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등 어두운 소식들이 많았다”며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합원과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금융인프라를 발판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조합원 및 금융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또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산림을 전국 최고로 가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

다는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수남 이사가 산림조합중앙회장 공로패를, 서재호 대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 조합원 김철수·김희철·김운용·전광표·김상현씨가 고성군산림조합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능1급 최규철씨와 파트타임 정은주씨가 고성군산림조합장 표창장을 수상 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 22일 고성군산림조합 제49기 정기총회가 열렸다.

# “믿음과 나눔으로 조합원에게 이익 환원”

## 고성신협 제 39차 정기총회 ... 자산 규모 286억원

고성신용협동조합(이사장 전연표)은 지난 23일 오전 고성군 문화의집 3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3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출,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 및 2010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1년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표준정관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개정(안)승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연표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조합원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금강산



지난 23일 고성신용협동조합 제39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관광 중단 여파, 구제역확산 등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합원과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조합이 됐다”고 소개했다. 고성신협은 조합원 5,523명에 28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박승근 기자

# 고성군수협 직원3명 특별승급



고성군수협(조합장 최영희)은 지난 15일 2010년도 수협보합 판매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표창장 수여 및 1호봉 특별승급을 실시했다. 이번에 특별 승급 혜택을 받은 사람은 김성호 과장, 김영복 팀장, 손영금 텔러 등 3명이다.

장공순 시민기자

##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 휠라코리아(081660)

선진국 증시와의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는 2월 들어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신흥국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플레이 우려로 일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수급 불균형을 불러왔고 지수는 1900선 중반까지 주저앉은 상황이다. 외국인 현물 매수 복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시장 조정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2월 들어 지수는 고점 대비 150포인트 가량 하락한 상황

이라 향후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세를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 형태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수 조정 구간에서는 지수와 밀접한 우량주보다는 중소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형 개별 종목 위주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휠라코리아(081660)란 기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휠라코리아는 스포츠 의류를 비롯한 신발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실적 또한 기대되고

있다. 지난 4분기 실적 역시 기대치에 부합한 1775억 원 매출에 2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가는 상장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수급 공백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미국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미국 법인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고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인은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가량 급증한 59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올해 미국 법인은 전년 대비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국 조인트벤처(JV)로부터의 로열티 수입도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므로 전체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호 실적에도 상장 이후 주가는 수급 공백으로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판단된다. 기업 가치를 고려해 봐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이며 9만 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시 분할 매수로 모아가기 바란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